

#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일자	2020년 12월 31일 (목)
발신 (담당)	장애여성공감(이진희 010-5352-723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우정규 010-8581-2129)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김수경 010-2408-1410)
분량	총 5매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 긴급 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지하역사(해치마당)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장애여성공감,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송파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은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40여명과 비확진자가 모두 함께 코호트 격리된 상황입니다. 시설 내 코호트 격리는 거리두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확진자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확진자의 온전한 치료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신아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여 치료와 방역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예외로 하지 않고 방역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치료와 자가격리가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단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와 예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코호트 격리 중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긴급탈시설, 나아가 시설폐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시설의 인권침해적 본질을 드러낸 계기이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탈시설이 보다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설폐쇄 운동을 더욱더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월 29일 서울시청 앞 농성을 통해서 신아재활원에 대한 ‘긴급탈시설’을 주장하였고,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서울시와의 합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30일 중대본 앞에서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대본의 코호트 격리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중대본이 지금 바로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12월 31일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지하역사(해치마당)
- 사회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붙임 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붙임 2.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끝.**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 요구안

### 1.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게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 지침 마련

- 2020.12.29.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게 대하여 재난적 상황인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여 신아재활원 공간을 비우는 것으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 하였음.

-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방대본의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코호트격리'라는 원칙을 폐기하고 즉각적인 '긴급분산조치'를 통해 인간으로 존엄한 삶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임.

### 2. '긴급분산조치' 기간은 코로나 1단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합금지명령 수준의 지침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되어야 함.

- 코로나 K-방역이 놓치고 있는 것은 D(For the Disabled)-방역이다. D-방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생활시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긴급분산조치' 이후 집단거주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코로나 감염의 취약하고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는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함.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의 면담 요청

- 현재 긴급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긴급분산조치'의 빠른 결정을 위한 면담을 공식 요청함.

- 신아재활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방침을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우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 농성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면담투쟁을 진행할 것임.

**붙임 2.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I·SEOUL·U 서울특별시	<b>서울특별시</b>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경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제목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이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재난적 상황인 집단감염 긴급조치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시설의 공간을 비운다.
- 서울시는 확진 판정받은 거주인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성 판정 받은 거주인은 긴급 임시거주공간, 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을 마련하여 분산한다.
- 긴급 임시거주공간에서 거주기간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으로 진행하고, 이후 코로나 1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 기간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요청한다.
- 해당시설 거주인에 대하여 긴급 임시거주공간에서 개별접촉이 가능한 상황을 검토하여 개인 별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대형시설인 해당 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인 탈시설 계획을 이행한다.
-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이행과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서울시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 진행한다.
- 서울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반영한다. 끝.